

# “설 연휴 ‘과학나라’로 오세요”



지난해 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된 설맞이 과학놀이 체험(왼쪽)과 수학특별전 ‘수학나라의 엘리스’.

(광주과학관 제공)

### 국립광주과학관 특별 프로그램

### 상설전시관 입장료 반값·한복 입고 오면 무료 ‘3D 복주머니’ 등 민속놀이·박사 강연 다채

국립광주과학관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2일부터 6일까지(5일 휴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설 프로그램은 과학강연과 전통 민속놀이 등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들로 구성됐다.

◇한복 입으면 무료·전통 놀이 다채 먼저 광주과학관은 연휴 기간 동안 상설 전시관 입장료를 반값 할인해주며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은 상설전시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휴기간 동안 ‘3D 복주머니 만들기’, ‘사이언스 토크 세뱃돈 관찰하기(위조지폐 감별)’와 같이 설날과 관련된 주제를 과학과 결합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설 연

휴 마지막 날인 2월6일 오후 2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습원자시계를 개발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석 박사가 ‘시간과 원자시계’를 주제로 과학 강연을 펼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 전통 놀이도 다채롭다. 전시실 밖에서는 자신의 개성에 맞게 연을 만들고 날릴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 6일에는 가족 대항 뿔놀이 대회가 열린다.

이외 즉석 사진촬영, 신년카드·엽서 보내기 등 이벤트가 여럿 준비돼 있다.

◇수학특별전 특별 강연·퀴즈 이벤트 광주과학관은 오는 3월3일까지 진행되

는 수학특별전 ‘수학나라의 엘리스’에 오전 시간대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는 무료 관람 혜택을 준다.

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수학특별전은 동화 속 수학나라를 배경으로 기초 수학, 산업수학 등 생활 속 수학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획 전시이다.

과학관이 마련한 ‘굿모닝 요금’은 주중 주말 오전 이전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료 전액(5000원)을 감면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수학특별전과 연관된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오는 2월2일부터 주말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장 내 숨겨있는 ‘엘리스’를 찾으면 선착순으로 엘리스 피규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일 4회 진행한다(오전 10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4시 30분). 특별전 전시시설 참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게릴라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1일 3회·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는 기념품이 주어진다.

또 주중에 유치원, 학교, 학급 등 단체 관람객에게는 즉석 단체 기념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 2월 중에는 수학특별전 관람후기 콘테스트, 수학전문가 초청 특별강연도 개최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과학관 누리집(sciencecenter.or.kr)을 참고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ICT랩 연간 단계별 코딩 교육’ 국립광주과학관 연말까지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부터 청소년을 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는 ‘ICT랩 연간 단계별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대상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오는 2월8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총 6단계로 구성됐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기초를 이해하고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보는 1단계 ‘뱃츠고 코딩’부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을 직접 설계하는 ‘도전! 코딩로봇(고급)’까지 마련됐다. 한 기수에 7~10차 시로 운영하는 커리큘럼은 기초 코딩부터 시작해 심화 코딩까지 1년 동안 연이어서 모두 수강 할 수 있다. 한 단계 당 오전반 10명·오후반 1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960-62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애플, 고가전략 참패 ... 아이폰 분기 매출 15% 감소

애플이 지난 분기에 843억 달러(94조3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실적 발표회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들에게서 한을 보내 하향 조정된 실적 전망치와 거의 그대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애플은 이날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매출 목표(가이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분기의 실적은 우리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깊고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매출은 리피터브 전망치 평균(840억 달러)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51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526억 7000만 달러)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다.

애플은 아이폰의 매출 부진이 주로 중국 경제권의 경제성장 둔화 때문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애플의 판매 전략이나 제품 자체의 특성을 두고 다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하는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설했다.

AP통신은 “애플이 아이폰의 수요증가 둔화세를 가격 올리는 방식으로 상쇄하기를 희망했으나 그 전략이 연 말 쇼핑시즌에 판매가 저조해진 뒤 역풍을 맞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분기부터 아이폰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제로 이날 아이폰 매출 실적을 발표했을 뿐 판매 대수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천리안 위성 2A호 목표 궤도에 안착

### 항우연서 첫 촬영 영상 수신 7월부터 영상 실시간 서비스

지난달 발사된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 2A호가 촬영한 첫 영상이 지난 29일 공개됐다.

기상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천리안 위성 2A호가 지난 26일 낮 12시 10분에 촬영한 첫 영상을 국가기상위성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달 5일 새벽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정지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목표궤도안착시켰다.

국가기상위성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상 및 우주기상 탑재체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는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운영 준비 기간 중 천리안 위성 2A호가 보내오는 영상을 활용해 각 부분별 기능시험과 원하는 성능의 자료가 생산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천리안 위성 2A호가 보내온 첫 영상은 기존 천리안 위성 1호의 흑백영상과

다르게 천연색 컬러영상으로 촬영됐다.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형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호주와 중국 내륙지역은 사막 지역으로 인해 주변 지역보다 다소 붉은색으로 보였다. 또한 호주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열대저기압 ‘릴리(Riley)’도 관측된다.

한반도 주변 위성영상에서는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형성된 대류운이 서해상과 동해상에 줄지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천리안 위성 2A호는 천리안 위성 1호에 비해 공간 해상도가 4배 향상된 전 지구 영상을 10분(한반도 2분) 간격으로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동하는 대류운의 발달 여부와 발달 정도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고 태풍은 태풍의 중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집중 관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리안 위성 2A호가 보내오는 영상은 오는 7월부터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바이오스피어2’.

### “우주생활 체험해보세요”

### 일본 교토대, 미국 애리조나서 프로그램 운영

일본 교토대학이 올 여름부터 우주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래 ‘우주개발’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아 신문이 30일 전했다.

이 대학은 미국 애리조나대학의 시설인 ‘바이오스피어2’를 이용한다. 바이오스피어2는 애리조나주 사막에 1991년 건설된 거대한 밀폐공간에 만든 인공생태계 시설이다. ‘제2의 생물권’이라는 의미로 인류가 우주공간으로 이주할 경우 폐쇄된 습윤 생태계에서 생존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건설됐다. 열대우림 등 지구의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과 화성의 표면을 모방

한 지역 등을 갖추고 있다.

건설 초기에는 시설 안과 밖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폐쇄된 환경에서의 실험이 시도됐지만 현재는 통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주비행사 출신 교토대 특임교수인 도이 다카오(64)가 중심이 돼 마련됐다. 8월에 1주일 정도 예정으로 학생 10명이 현지에 체재하면서 우주생활을 체험한다. 장차 우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유지활동을 고려해 시설 내의 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수질관리방법 등을 배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